

# 中共 軍事엘리트의 정치적 역할

崔

明\*

## <目 次>

- |                                |                      |
|--------------------------------|----------------------|
| I. 머릿말                         | IV. 後期文革의 軍, 1970~76 |
| II. 建國 10년의 軍, 1949~58         | V. 後期毛時期의 軍, 1976~   |
| III. 軍의 役割增大와 文化革命,<br>1959~69 | VI. 맷는말              |

## I. 머릿말

1966~1976년 사이에 발생했던 文化革命은 人民解放軍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킨 사건이기도 했다. 1976년 10월 毛澤東의 死亡과 더불어 야기되었던 일련의 정치적 변동에 있어서도 軍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그후 中國의 實力者로 부상한 鄧小平은 軍의 정치적 역할을 감소시키고, 軍에 대한 黨의 統制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人民解放軍은 中國의 政治過程속에서 中核의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軍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문제는 흔히 民軍關係(civil-military relations)라는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고,<sup>(1)</sup> 그것은 특히 共產主義 정치체제 아래서는 黨軍關係(party-army relations)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다.<sup>(2)</sup> 여기서 民軍關

\* 서울大 社會大, 政治學

(1) 예컨대,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New York: The Vantage Books, 1957); David E. Albright,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32, No. 4 (July, 1980), pp. 553-576.

(2) 예컨대, 蘇聯과 中國에 있어서 黨軍關係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Ellis Joffe, *Party and Ar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er Corps, 1949~1964* (Cambridge, Mass.: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65). 기타 共產國家에 있어서 民軍關係 내지는 黨軍關係를 다룬 연구로서는 Dale R. Herspring and Ivan Volgyes (eds.),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Systems* (Boulder, Colo.: Westview, 1978); Timothy J. Colton, *Commissars, Com-*

係 혹은 黨軍關係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軍에 대한 民 혹은 黨의 統制” (civilian or party's control over the military)를 지칭한다. 그러나 民 혹은 黨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軍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民軍關係에는 여러가지의 모델이 있을 수 있으며,<sup>(3)</sup> 다시 그것은 사회에 있어서 軍의 역할—특히 그 정치적 역할—을 결정한다.

中國에 있어서 民軍關係는 어느 하나의 固定된 모델에 의하여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두가지의 特性이 그것을 지배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다. 첫째, 文民의 엘리트와 軍事엘리트 사이의 구별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民軍關係의 역사적 전통과 부합되는 현상이지만, (Chien, 1948:239-251; Michael, 1946:65-69, 84-87) 紅軍이 창건된 이후 그것이 담당했던 “非軍事的 役割”이 文民엘리트와 軍事엘리트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둘째, 1949년 이후 中國의 정치는 보다 穩健한 정책과 보다 急進的인 정책사이에서 週期的인 변화를 거듭하였었고,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軍의 정치적 역할도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軍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평가는 그 역할의 全過程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그러한 과정에 대한 概觀에 있다.

## II. 建國 10년의 軍, 1949~1958

中國 共產運動은 그 性格이 軍事的이었기 때문에, 軍은 革命에 있어서 主導的인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에 대한 民 혹은 黨의 優位원칙은 1929년 古田會議에서 毛澤東에 의하여 확립되었던 것이다.<sup>(4)</sup>

“黨이 銃砲를 지배하여야 하며, 銃砲가 黨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이 원

---

*manders, and Civilian Authority: The Structure of Soviet Military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Jonathan R. Adelman (ed.), *Communist Armies in Politics* (Boulder, Colo.: Westview, 1982); Roman Kolkowicz and Andreej Korbonksi (eds.), *Soldiers, Peasants, and Bureaucrats: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and Modernizing Societi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3) 共產主義 政治體系에서 존재하는 民軍關係의 모델에 관하여는 예컨대, 崔明, “中共에 있어서 黨과 軍의 關係：民軍關係의 共產圈 모델에 관한 一考察,” 『韓國政治學會報』, 第17輯(1983), pp.261-269를 볼 것.

(4) 古田會議의 決議에 관하여는 예컨대, John Gittings, *The Role of the Chinese Ar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p.102-105.

칙은 그후 점차로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黨軍關係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sup>(5)</sup> 더구나, 中國共產主義者들은 1917년 블셰비키 혁명 이후蘇聯에서 실시되어왔던 軍에 대한 政治統制 制度를 도입했기 때문에 軍에 대한 黨의 優位는 1949년 이전 革命戰爭기간 동안에도 원만히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된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黨優位의 전통은 남아 있었고, 따라서 軍의 역할도 黨의 決定을 따르는, 制限의인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軍의 역할이 순전히 군사적 기능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人民解放軍은 革命戰爭시기부터 다양한 非軍事的 역할을 수행했었으며, 그 필요성은 1949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革命內戰의 마지막 단계에서 共產黨이 大陸을 석권하게 되자, 새로운 정권의 정치조직은 人民解放軍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軍司令官의 임무의 하나는 최고 행정기관인 軍事管制委員會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委員會의 長은 地方行政單位의 長을 겸직하였고 그들은 대체로 軍의 古參幹部였었다. 말하자면 軍事管制委員會는 地方人民政府를 수립했던 것이다. 1949년 말에 이르러, 전국은 여섯개의 大行政區로 분할되었었고, 각區에는 中央政府조직을 모델로 한 지역정부가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네地域은 그 지역을 점령한 野戰軍의 지배를 받았고, 그 곳에서는 軍政委員會가 조직되었다. 軍政委員會의 人事는 軍幹部로 충원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1954년 이들 委員會가 文民政府로 권력을 이양하기까지, 대부분의地方政府는 軍에 의한 통치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Gittings, 1967: 263-271)

1954년 新憲法의 제정을 전후하여 國家行政體制가 정비됨에 따라, 軍에 대한 文民의 優位가 확실시되었으며,<sup>(6)</sup> 軍은 점차로 정치적 영역에서 후퇴

(5) 이 原則은 黨軍關係가 미묘하게 展開될 때마다 강조되었다. Mao Tse-tung, "Problems of War and Strategy,"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54), Vol. II, p.272 참조.

(6) 1954년에 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第42條은 "中華人民共和國의 主席은 全國의 武裝力を 통솔하고, 國防委員會의 議長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憲法에는 軍統帥權의 구체적 내용과 國防委員會의 권한에 관하여 明文의 條項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武裝力의 통수에 관한 第42條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國防委員會는 國家主席에 부속된 補助的 諸間機關이며, 그 權限도 주로 參謀機能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周方, 「我國國家機構」(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55), p.75] 그럼에도 불구하고 憲法 第42條는 軍統帥에 있어서 文民의 優位를 明文化한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憲法上의 이러한 明文規定과는 관계없이 人民解放軍은 共產黨 中央委員會

하게 되었다. 野戰軍은 해체되고, 그 예하부대들은 中共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으며, 地方行政을 맡고 있었던 野戰軍 司令員들도 中共(北京)으로 모두 轉職되었던 것이다. (Gittings, 1967:27-4; Joffe, 1982:141)

그러나 黨에 대한 軍의 服屬은 黨과 軍의 관계에 아무런 긴장과 마찰이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긴장의 쪼스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軍事路線”에 관한 것이었고, 軍事路線을 둘러싼 긴장은 軍이 正規化되고 近代化되면서 표면화되었다. 毛澤東은 軍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黨의 도구가 되는 것을 理想을 삼았었다.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人民戰爭”的 戰略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朱德·彭德懷·葉劍英·劉伯承·聶榮臻 등의 軍幹部들은 軍이 가능한 한 발전된 武器를 보유하고, 軍事作戰에 일차적으로 전념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공업화되고, 과학적이고, 근대화된 軍의 必要性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확실히 時期와 環境에 따라 軍事路線은 변화되어 왔었고, 어느 의미에서 中國의 共產運動은 두 개의 軍事路線의 교차의 역사인 것이다. 毛澤東의 “人民戰爭”路線은 抗日戰爭시기에 우세하였으나, 革命內戰기간과 특히 1949년 이후에 있어서는 보다 전통적이고 직업적인 軍事作戰과 政策이 우선시되었다. 또한 1949년 이후 軍을 포함한 정부 각 분야에 있어서 官僚的 定規化와 職業化의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人民解放軍의 將校團도 정치로부터 분리된, 비교적 獨自의 意見集團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日常的인 일, 經歷의 패턴 및 價值選好를 발전시켰으며, 그 가운데는 非軍事的 活動에 대한 忌避현생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毛澤東은 軍이 中國社會의 動員과 變革에 있어서 黨의 충성스러운 道具가 되기를 바라던 것이며, 이러한 毛澤東의 路線은 大躍進政策의 추진에 있어서 당시 國防部長이던 彭德懷 등의 소위 “近代化”路線과 대립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大躍進政策은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毛澤東이 주도한 운동이었다. 농업의 집단화가 강화되고, 家內의 강철생산을 포함한 地方工業이 장려되고 조작되었다. 그러나 質에 대한 콘트롤의 결

---

의 소속기관인 中央軍事委員會의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中央軍事委員會에 관하여는 예컨대, Harvey W. Nelson, *The Chinese Military System* (2nd ed.; Boulder, Colo.: Westview, 1981), pp. 45-49, 73-92. 그러나 당시에는 國家主席과 黨中央軍委의 主席이同一人(毛澤東)이었기 때문에 黨機構와 國家機構사이의 권한상의 충돌은 없었을 것이며, 新設된 國防委員會의 人的 구성도 黨中央軍委의 그것과 같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 生產量에 대한 과대조작 및 광범한 大衆의 불만때문에 大躍進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속에서 黨과 軍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었었다.

彭德懷를 중심으로 한 人民解放軍과 기타 黨의 온건한 간부들이 大躍進運動의 초기 단계에서 그것을 지지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운동이 실행된지 2년 후인 1959년에 이르러 劉少奇를 위시한 黨의 穩健 势力과 彭德懷를 중심으로한 軍幹부들이 大躍進에 대하여 상당한 不滿을 갖게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軍幹부들은 일반 戰士와 함께 生產勞動에 참여하기 위하여 “下放”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던 것이다.

사실 상당수의 軍幹부들은 그들의 政治的 役割과 職業的인 要求사이의 均衡一어느 의미에서 “紅”과 “專” 사이의 均衡一이 유지되기를 바랐었던 것이나, 大躍進은 이러한 均衡을 파괴시킨 정책이었다. 따라서 兩者間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그것은 1959년 江西省 嘉山에서 개최된 黨 中央委員會 全體會議에서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彭德懷는 大躍進의 경제적 실패를 비판하고, 그 책임을 毛澤東에게 물었었다. 毛澤東과 彭德懷사이의 갈등은 中共指導者 내부의 심각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毛澤東은 嘉山會議에서 만일 자신의 정책이 軍의 支持를 받지 못한다면, 農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紅軍을 조직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알려졌다.(Schram, 1974: 131-146)

열면 논쟁끝에 嘉山會議는 彭德懷를 위시한 상당수의 軍幹부를 숙청함으로서 끝났다. 軍事路線의 측면에서 볼 때, 嘉山會議는 毛澤東主義者들이 승리한 회의였으며, 적어도 黨이 “銳砲”를 콘트롤하고 있었음을 입증한 사건이기도 했다. 당시 國防部長이던 彭은 軍內의 세력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黨 中央에 대한挑戰에는 실패했던 것이다.(Jencks, 1982:53-54, 253-254; Charles, 1961:53-76; Simmonds, 1965:120-138)

그리하여 1950년대에는 軍의 정치적 역할이 두 개의 수준에서 表出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地方行政單位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黨의 補助勢力으로서의 역할이며, 둘째는 中央의 政策決定機構 속에서 하나의 利益集團으로서의 역할이었다.<sup>(7)</sup> 이 두 수준에서 모두 軍의 정치적 역할은 黨의 統制에

(7) 黨 中央委員會와 政治局 회의 등에서 軍幹부들이 非軍事的 이슈에 대하여 자신들의 見解를 표명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한 服從이 그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黨軍關係와는 달리, 1960년대의 軍은 1950년대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기 시작했다. 엘리스 조페(Ellis Joffe)는 그 차이를 다음의 네가지로 설명하고 있다.(Joffe, 1982:141)

첫째, 초기의 軍은 분열되지 않은 中央指導力의 정치적 도구로서 非軍事的 역할을 수행했음에 반하여, 1960년대의 軍은 분열된 中央指導力의 權力 爭鬥에서 黨派的參與者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둘째, 1950년대에는 指導力이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軍의 정치에의 참여도 軍自體의 분열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1960년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은 깨어졌다는 것이다. 세째, 1950년대에 軍이 黨의 지도아래서 정치·행정 기능을 수행한 것은 黨이 아직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메카니즘을 구비하지 못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軍의 정치적 역할은 黨기구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黨기구를 대치한 행동이었다. 이것은 특히 文化革命 당시의 軍의 역할에서 잘 나타났었다. 네째, 1950년대에는 文民의 幹部와 軍幹部사이의 役割分化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기에 이르면 기능적 전문화와 직업화가 발전되어, 文民의 指導者와 軍指導者는 獨自의이며 때로는 相互競爭의 官僚體系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비록 1959년의 廬山事件이 있기는 하였지만, 建國 첫 10년의 軍은 黨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었고, 따라서 軍의 정치적 역할도 黨이 軍에 위임한 事項에 한정되었다.

### III. 軍의 役割增大와 文化革命, 1959~1969

1959년 彭德懷의 후임으로 國防部長이 된 林彪는 人民解放軍內에 毛澤東思想을 고취시키고, 軍의 정치·이념적 수준을 높이고, 軍內의 黨의 콘트롤페카니즘을 재건하고, 따라서 軍의 職業主義를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林彪는 國防部長에 취임후 최초로 발표한 論文에서 “黨과毛主席에 대한 人民解放軍의 無條件의 忠誠”을 강조했다.(Lin, 1959; Chang, 1972a:49) 그리하여 1960년부터 林彪는 人民解放軍에 대한 政治的 教條注入을 목표로 한 일련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로 毛澤東思想의 연구와 적용에 관한 것 이었다.

물론 軍에 대한 林彪의 정책은 軍의 정치적 요소와 그 직업적 필요 사이

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960년대초의 人民解放軍이 갖던 革命的 性格은 黨機關의 雜湊적인 官僚化 경향과 날카롭게 대비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毛澤東은 黨의 官僚化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軍의 政治화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毛澤東은 1960년대 초반에 실시되었던 非軍事的 分野에서의 社會運動—예컨대, 社會主義 教育運動과 文藝界에서의 整風運動 등—보다는 軍의 運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人民解放軍이 올바른 “共產主義的 工作스타일”的 典型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雷鋒과 王杰과 같은 혼신적인 人民解放軍 戰士의 행동이 높이 평가되고, 그들을 배우자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켰던 것이다.<sup>(8)</sup> 이와 같은 일련의 운동은 1963년 “學習人民解放軍運動”으로 발전되었으며, 그것은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조직은 軍의 조직·작전·이념훈련 방법을 모델로 배워야 한다는 운동이었다. 또한 1964년부터 人民解放軍의 政治委員制度를 모델로 한 “政治工作部”가 黨과 行政府의 각급 조직에 설치되었고, 이를 部署는 人民解放軍 출신의 政治幹部들로서 총원되었던 것이다. (Chang, 1972a:50)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적어도 1963년 이전에는 人民解放軍을 엄격한 黨의 통제아래 두고 또 그 職業主義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 이후에는 軍이 점차로 黨과 경쟁적인 지위를 획득하면서 종전에 黨의 영역에 속하였던 기능들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逆說的인 현상이었다. 아마 이것에 대한 說明은 黨指導力의 分裂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大躍進政策의 실패와 더불어 劉少奇와 鄧小平 등의 黨幹부들은 毛澤東 指導力의 無謬性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中國社會의 근대화와 革命化에 대한 毛澤東의 方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黨組織을 관장하던 黨僚幹부의 반대에 봉착하게 된 毛澤東은 자신의 意志를 관철하기 위하여 黨組織 밖의 새로운 權力基盤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가 人民解放軍을 새로운 權力基盤으로 이용하게 된 것은 黨指導力 分裂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8) 雷鋒과 王杰은 임무수행 도중에 회생된 “모범전사”라는 것이며, 그들의 회생적 행동을 배우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崔明, 「現代中國의 政治」(서울 : 法文社, 1974), p.228 참조.

그러므로 文化革命이 발발하면서 人民解放軍의 정치적 역할이 급격하게 증대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軍의 정치적 역할증대가 제3세계의 많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軍의 自發的인 行爲—쿠데타와 같은—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sup>(9)</sup> 말하자면, 人民解放軍이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先制에 의한 것이 아니라, 外部的인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人民解放軍이 黨內의 反對勢力を 공격하기 위한 權力의 기반으로서 毛澤東에 의하여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解放軍報』가 文藝界의 論爭에 가담한 것에서 비롯된다.<sup>(10)</sup> 그후 人民解放軍은 정치적 영역으로 그 역할을 점차로 증대시켜 갔으며, 특히 人民解放軍의 總政治部은 毛澤東에 의하여 權力鬪爭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文藝界의 整風과 知識階級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된 軍의 정치적 역할의 증대는 1966년 여름에 이르러 소위 黨權派인 劉少奇와 鄧小平의 속청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黨의 기관지인 『人民日報』의 조직도 개편되어, 軍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해 8월에 개최된 8期 11中全會에서 軍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林彪를 위시한 軍命部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은 11中全會의 論功行賞에서 알 수 있다.<sup>(11)</sup>

(9) 이러한 점은 共產主義 政治體制의 黨軍關係의 특색으로서 흔히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Amos Perlmutter and William LeoGrande,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December, 1982), pp. 778-789.

(10) 그것은 1965년 11월 29일字 『解放軍報』에 당시 北京 副市長 吳舍의 史劇 "海瑞罷官"을 비판한 姚文元의 글을 실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의 중요성을 간단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吳의 "海瑞罷官"은明朝의 관리였던 海瑞가 관직을 삭탈당한 故事에 비유하여 彭德懷의 속청을 풍자한 것인데, 이 史劇이 1962년 北京에서 공연되어 好評을 받은 일도 있었다. 毛澤東은 吳에 대한 공개적인 규탄을 黨에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黨指導者, 특히 北京市長이던 彭真에 의해서 목살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人民解放軍의 기관지인 『解放軍報』가 吳의 史劇을 비판하는 글을 실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또한 文化革命에 있어서 軍의 역할을 변경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崔明, 「現代中國의 政治」, p. 26.

(11) 中國共產黨 8期 11中全會(1966)에서 林彪는 毛澤東의 後繼인 中央委員會 副主席으로 선출되었고, 또 葉劍英, 徐向前, 聶榮臻 등 軍幹부가 政治局員으로 발탁되었다. Chang, "Changing Patterns of Military Roles in Chinese Politics," pp. 53-55; Chang, *Power and Policy in China*, Appendix B, pp. 253-257.

그러나 軍의 정치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 것은 1967년 부터였다. 그것은 소위 “紅衛兵”的 동원에 의존하여 黨內의 官僚勢力を 속칭할 수 없다고 판단한 毛澤東一派가 軍의 보다 적극적인 政治的介入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결과 中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黨・軍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동시에 軍內部의 分裂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中央의 過激勢력은 “資本主義의 追從者들로부터 權力を 탈취하려는” 紅衛兵과 기타 지방의 過激한 大衆組織을 지원함으로써 軍이 文化革命에 介入할 것을 명령하였다.<sup>(12)</sup>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방의 많은 “資本主義의 追從者들”은 軍幹部였던 것이다.<sup>(13)</sup> 그렇기 때문에 中央의 指示는 대체적으로 지방 軍幹부들의 저항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수의 大軍區 및 省軍部의 幹부들은 오히려 과격한 大衆組織의 활동을 저지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中央의 過激勢력의 聯合은 中央軍事委員會의 指示라는 이름을 빌어서 16개의 軍團으로 하여금 中央의 指示에 반대하는 지역으로 진주하라는 명령을 다시 발하게 되었다. (Ting, 1982:37) 그리하여 軍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混亂이 국에 달한 것은 1967년 7월에 발생한 소위 “武漢事變”이었다. 이것은 武漢軍區의 軍司令官이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격세력과 온건세력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中央에서 파견된 과격세력의 대표를 체포한 사건이었다.<sup>(14)</sup> 이 사건은 中央의 과격세력이 그 權威를 다시 찾고, 武漢軍區의 軍司令官과 그 部下들을 다시 체포함으로써 결국 과격세력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地方의 軍部가 공공연하게 中央에 대하여 反旗를 든 최초의 사건이었고, 이것을 계기로 文化革命의 과격

(12) 人民解放軍의 介入를 명령한 中央의 지시는 *Current Background* (U.S. Consulate-General, Hong Kong), No. 852, pp. 49-50.

(13) 당시 軍의 分裂에 관하여는, William P. Ting, “A Longitudinal Study of Chinse Military Factionalism,” *Asian Survey*, Vol. 15, No. 10 (October, 1975), pp. 896-910; Harvey Nelson, “Military Forces in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Quarterly*, No. 51 (July—September, 1972) pp. 444-474.

(14) 예컨대, Thomas W. Robinson, “The Wuhan Incident: Local Strife and Provincial Rebellion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a Quarterly*, No. 47 (July-September 1971) pp. 413-418; Hong Yung Lee, *The Politic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 Case Stud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p. 245-252; Chien Yu-Shen, *China's Fading Revolution: Army Dissent and Military Divisions, 1967~68* (Hong Kong: Center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1969) 등을 볼 것.

성은 점차로 둔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毛澤東을 정점으로 하는 中央의 과격세력은 全國의 秩序回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軍이 중심세력인 革命委員會로 하여금 大眾組織의 과격한 행동을 견제하면서 秩序를 회복케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黨 9全大會가 소집된 1969년 4월에 이르면, 紅衛兵組織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中央의 과격세력의 힘도 상당히 감소되게 되었다. 그리고 文化革命의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결과로 軍이 地方에서 뿐 아니라, 中央의 정책결정기구에서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文化革命의 종식 당시에 증대된 軍의 정치권력은 지방기구의構成에 반영되었다. 즉, 省級 革命委員會의 29명의 委員長 가운데 21명이 軍人이었으며, 479명의 全體 常任委員 가운데 약 반인 235명이 軍人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지방 행정에 있어서도 軍의 위치는 지배적이었다.

한편 中央의 정책기구에 있어서도 軍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증대되었다. 9全大會에서 선출된 170명의 中央委員會 正委員 가운데 약 45%가 軍人이었고, 政治局員의 반이 軍의 배경을 가졌다. 특히 재미있는 현상은 中央委員會에 선출된 軍代表 가운데 65%가 省軍區내지는 그 아래의 軍單位 출신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地方 軍幹부의 得勢가 반영된 것이다.(Joffe, 1982: 146-137)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文化革命의 受惠者들이 地方 軍幹부였다는 것이며, 中央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地方의 利益에 대한 고려가 큰比重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地方에 있어서 軍의 정치적 권력의 증대는 중국정치에 있어서 地方軍部가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文化革命 당시 軍의 행동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地方의 軍當局은 상당한 정도로 中央으로부터의 自治를 향유하게 되었던 것이며, 많은 경우에 그들은 中央의 指示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맞게 그러한 指示를 재해석하기도 했던 것이다.(Joffe, 1982:147) 물론, 이와같은 自律性은 中央權威의 약화라는 일시적인 현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만 權力은 일단 획득되면 쉽사리 그 형태를 바꾸려 하지 않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또 軍閥에 의한 地域主義를 中國이 경험했던 까닭에, 일부 관측자들은 중국 정치체계의 지역적인 분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은 다음은 두가지 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첫째는 일종의 國家主義(nationalism)가 통합력을 갖는 요소로 남아 있

있으며,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中央이 전국적인 權威의 集結地로서 軍의 기본적 忠誠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地方의 軍幹부 자신들도 직업적인 紀律에 대한 강한 관념과 團結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 때문에 지역적인 分裂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했다는 점이다.<sup>(15)</sup> 비록 위에서 언급한 武漢事變과 같은 事件이 있기는 하였으나, 中央의 승리로 그 事件이 종식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軍閥시대의 탄생과 같은 分裂의 가능성 이 거의 없었음을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에 軍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그 정치체계에 있어서 軍의 위치와 民軍關係는 물론, 軍內部의 정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사실 軍이 정치에 개입할 때면, 軍 자체도 고도로 정치화되게 마련이며, 이것은 人民解放軍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中國에 있어서 紅軍의 역사를 들이켜 볼 때, 軍內部의 분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文化革命의 涡中속에서 그 分裂은 심화되어 表出되었었다. 그 분열의 양상은 中央과 지방, 직업주의와 정치, 野戰軍과 官僚化된 軍 사이의 대립으로 첨예화되어 나타났던 것이다.<sup>(16)</sup> (Barnett, 1974:91-109)

軍의 정치적 역할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와 같은 軍의 分裂이 갖는 의미는 크다. 우선, 統一되고 단합된 행위자로서의 軍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軍의 상이한 集團은 서로 경쟁적인 利害關係를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 유사한 見解와 利害關係를 갖는다고 판단되는 黨의 그룹과의 연합세력을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文化革命에서 본 바와같이 상당수의 地方軍幹부가 中央의 穩健勢力を 지지한 것이라든가, 또 1971년 毛澤東과 周恩來의 연합세력이 國防部長 林彪와 대립되었을 때 일부 軍幹부와 職業的 將校團이 전자를 지지한 것에서 발견된다. 물론 中央에서의 權力 내지는 政策의 分裂이 있을 때 軍이 中央의 穩健勢力を 지지해 온 것이 中國에 있어서 黨軍關係의 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 中央

(15) 또한 A. D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Mao Er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Ch. 2; Parris H. Chang, "Regional Military Power: The Aftermath of the Cultural Revolution," *Asian Survey*, Vol. 12, No. 12 (December, 1972), pp.1008-10 참조.

(16) 人民解放軍의 파벌주의에 관하여는, William W. Whitson and Huang Chanshia, *The Chinese High Command: A History of Communist Military Politics* (New York: Praeger, 1972)를 볼 것.

과의 연합 형성이 文化革命의 발발 이전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文化革命의 결과로 그러한 패턴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물론 毛澤東 死後의 경우에서와 같이, 軍이 보다 적게 정치문제에 관여하고, 보다 더 職業主義에 충실히 되면, 軍內部의 긴장은 감소된다. 人民解放軍의 전통과 구성으로 보아 派閥간의 긴장이 불식되는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긴장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軍事的일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 IV. 後期 文革의 軍, 1970~1976

정치에 대한 軍의介入이 文化革命의 결과이기 때문에, 文化革命의 狂亂性이 종식되었다고 하여 軍이 즉각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후퇴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9全大會가 있은 후 약 2년동안, 오히려 軍은 정치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지역적인 權力構造에 있어서 그 지배력을 강화했었다. 이러한 현상은 9全大會를 전후한 黨組織의 再建과정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sup>(17)</sup>

黨의 再建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權力의 분배를 둘러싸고 표면화된 地方 軍幹부와 過激세력 간의 갈등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省 黨委의 구성에서 첨예화 되었다. 새로이 구성되는 黨委는 軍이 主導 세력을 형성했던 革命委員會보다는 상위의 權威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過激派들은 黨委의 再建을 통하여 권력의 우위를 장악하려고 하였었다. 물론 軍指導者들은 이러한 過激派들의 意圖와企劃에 반발하고 나섰던 것이다. 상당수의 軍幹부들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에서 자제하려고 하였지만, 文化革命과정에서 過激세력과의 대립을 경험한 그들은 過激세력의 정치적 우위를 허용하려 하지는 않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黨委의 조직에 있어서 軍은 過激세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화했던 것이다.<sup>(18)</sup> 그 결과, 黨委에 있어서 人民解放軍의 權限은 革命委員會와 비교할 때 더욱 증대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革命委員會의 實力者였던 軍幹부들은 黨委에 있어서도 적어도 동등 이상의

(17) 예컨대, Ellis Joffe, "The Chinese Army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The Effects of Intervention," *The China Quarterly*, No. 55 (July-September, 1973), pp. 450-477 참조.

(18) 黨委의 再建과정은 1968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으며, 9全大會 이후에 가속화되었다.

지위로 선출되었다. 省 수준의 黨委의 158명의 書記 가운데 98명(62%)이 군인으로 충원되었고, 58명(32.9%)은 고참의 黨僚였고, 단지 8명(5.1%)만이 大衆조직의 대표였다. <sup>(19)</sup> (Joffe, 1973:466)

그러나 黨機構의 재건을 둘러싸고 야기된 투쟁은 새롭히 조성되기 시작한 中央指導力내에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었다. 그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그 한 要素는 人民解放軍의 總帥이며 毛澤東의 後繼者로 부상된 林彪의 개인적인 야망과 관련되었다. 文化革命 이후 林彪의 地位上昇은 毛澤東의 지지에 의한 것이었으나 黨의 재건과정에서 나타난 軍의 優位현상은 毛澤東과 林彪 사이의 不和를 배태시켰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많은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毛澤東은 周恩來로 대표되는 中央의 穩健세력과 제휴함으로써 地方軍幹부들의 뮤시적인 지원을 획득한 까닭에 林彪에 대한 숙청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1971년 9월 林彪가 毛澤東을 암살하려는 쿠데타에 실패하고 소련으로 망명 도중에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였을 때 그 절정을 이루었다. <sup>(20)</sup>

林彪 事件은 어느 의미에서 中央에서의 制限의in 闘爭이었지만, 그것은 軍의 정치적 역할과 黨軍關係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黨의 中央 指導力은 林彪와 그 支持勢力에 대한 숙청을, 黨과 軍사이의 不均衡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그 결과, 林彪 사망후의 시기는 軍이 정치의 영역에서 점차로 후퇴하는, 따라서 黨의 정치적 優位가 再強調되는 黨軍關係의 局面을 특징으로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軍이 후퇴하는 과정은 세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 非軍事的 영역에 있어서 軍의 역할 축소였다. 이것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예컨대, 1971년 말부터 人民解放軍은 여러 체널을 통하여 스스로가 黨의 지도력에 복종하고, 文民의 幹부와 大衆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증을 기할 뿐 아니라, 軍事紀律을 준수하고, 軍事的業務에 충실할 것을

(19) 中央黨機構에 있어서 軍의 進出에 관하여는 위에서 언급했음.

(20) 이에 대해서는 Joffe, "The Chinese Army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Philip Bridgman, "The Fall of Lin Piao," *The China Quarterly*, No. 55 (July-September, 1973), pp. 429-449; Ying-mau Kau and Pierre M. Perolle, "The Politics of Lin Piao's Abortive Military Coup," *Asian Survey*, Vol. 14, No. 6 (June, 1974), pp. 558-77; Ying-mao Kau (ed.), *The Lin Piao Affair: Power Politics and Military Coup* (White Plains, N.Y.: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1975) 등을 참조할 것.

강조했었다. 또한 黨機構의 再建과 그 운용에 관한 정보가 보다 널리 공표되기 시작했고, 非軍事的 정치 영역에 있어서 軍의 역할에 관한 보도가 점차로 사라졌던 것이다. (Joffe, 1982:151) 이와 같은 현상은 물론 軍이 정치의 영역에서 완전히 후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그 역할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軍의 직업주의가 다시 강조되었다. 이것은 지나친 政治化에 대한 반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林彪의 정책에 대한 批判을 통해서 시도되었다.<sup>(21)</sup> 이와 동시에 文化革命 당시에 희생된 상당수의 職業主義의 인 將校들이 복권되었다. 그 대표적인例는 羅瑞卿의 복권이다. 그는 고도로 직업화된 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발달된 軍事技術의 획득을 위하여 소련파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總參謀部長에서 숙청되었던 인물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職業主義에 대한 강조는 정치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했던 것이다.<sup>(22)</sup>

세째, 中央과 지방을 막론하고 黨을 위시한 정치권력구조에서 軍의 代表가 감소되었다. 文化革命과 그 직후에 있어서 軍司令官들의 行動은 하나의 기본적 條件이 총족되지 않은 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치적 직위를 文民의 지도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그들의 利害關係가 후임의 文民指導者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질서와 안정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文化革命의 과정에서 야기된 질서의 파괴가 軍指導者들로 하여금 정치에 개입하도록 한 하나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보장은 穩健派 幹部의 등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그러나 穩健勢力의 幹부의 등장은 그 진행이 느렸고, 또 복권된 일부 舊幹부들은 계속 過激勢力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地方權力機構로부터 軍代表의 후퇴는 점진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林彪의 실각에서 毛澤東의 사망사이에 9명의 軍

(21) 林彪에 대한 비판으로는, William A. Joseph, *The Critique of Ultra-Leftism in China, 1958~1981*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pp.183-219; Tien-wei Wu, *Lin Piao and the Gang of Four*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22) 그러나 이 職業主義에 대한 강조는 소위 “四人幫”的介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관하여는 Alan P.L. Liu, *How China is Rul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5), pp.203-204를 볼 것.

(23) 文化革命이 주로 過激勢力에 의하여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幹部단이 省黨委의 제 1書記에서 물러나서, 그 수는 21명에서 13명으로 줄었을 따름이었다. 다만 그 경우에 그 직위는 모두 古參幹부들에 의해서 충원되었었다. 1973년 10월에 소집된 10全大會에서도, 많은 舊幹부가 복권되고, 동시에 黨의 정책기구에서 軍의 대표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中央委員會 正委員 가운데 軍人의 비율은 9期의 65%에서 34%로 줄었으며, 政治局에서도 약 반에서 3분의 1로 줄었었다. (Ting, 1982:40)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영역에서의 軍의 退潮는 제한적이었고, 그 과정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은 毛澤東 死後에 軍이 수행한 결정적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V. 後期 毛時期의 軍, 1976~

1976년 10월 毛澤東의 사망 직후에 야기된 권력투쟁에서 軍은 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에도 軍의 역할은 軍部 外의 환경에서 온 壓力의 所產이었지만, 정치적 權力闘爭에의 개입을 軍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軍은 정치투쟁에 개입했던 前歷을 갖고 있었었고 또 소위 穩健勢力과 過激勢力 사이에서 발생한 繼承闘爭의 결과가 軍에 주는 영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떤 势力도 軍의 支持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Joffe, 1982:153)

穩健派들은 黨, 政府 및 大衆組織에 그들의 권력기반을 갖고 있었으며, 過激派들도 비록 毛澤東의 사망이 그들의 힘의 쏘스를 제거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동일한 기관에 그 세력기반을 갖고 있었다. 다만 양자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에 그 기반이 보다 광범하고 강력했던 반면에, 후자에 있어서는 上海와 北京의 民兵組織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던 것에서 발견된다.<sup>(24)</sup> 또한 過激派의 힘은 위의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전미디어를 콘트롤하고 大衆運動을 이용하여 그러한 기관들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그런데 毛澤東이 사망하자, 大衆運動에 대한 일차적인 장애가 軍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過激派들은 元老의 軍指導者들을 중립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Joffe, 1982:153) 이러한 노력에도 불

(24) 過激派들은 1973년부터 “제 2의 軍”이라고 할 수 있는 都市工人으로 구성된 民兵을 창설하려고 했었고, 그 지휘를 人民解放軍에서 분리시키려고 했었다. Liu, *How is China Ruled*, p. 204.

구하고, 軍은 다시 穩健세력을 지지하면서 權力鬪爭에 개입했다.

이介入은 民軍關係의 여러 측면을 보여 준 행위였다. 우선 그介入은 직접적으로 소위 過激派의 “四人幫”에 대한 쿠데타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행위는 文化革命 당시의 軍의介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毛澤東 사후에 있어서 軍의 행위는 葉劍英과 같은 보다 직업적인 정향의 軍指導者들의 선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共產主義 정권의 守護者로서의 軍의 역할을 중시했던 것이다. 그들은 위계적 질서, 權威에 대한 순응,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그 후에 진행된 改革行政이 필요로 했던 안정성을 제공했던 것이다. (Liu, 1985:205)

그리하여 일단 쿠데타가 성공하자, 軍은 華國鋒의 지위 강화를 강조했다. 『解放軍報』를 위시한 신문들은 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그에 대한 軍의 支持를 계속 표명했던 것이다. 또한 “古參黨幹部”的 權威 부활이 계속 보도되었고, 文化革命전의 사회·경제 질서로의 환원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Liu, 1985:204)

軍의 신문은 또 소위 “4個現代化”에 대한 文民指導者들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現代戰이 갖는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과도기에 있어서 軍의 守護者的役割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毛澤東 사후에 있어서 중국의 實用主義의 지도자들은 黨內의 民主主義, 사회적 法律主義 및 現代化를 강조하면서 1956년 8全大會의 정신으로의 복귀를 추구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黨의 改革主義者들을 黨軍관계에 있어서도 文民의 정치와 軍事와의 엄격한 분리를 원했었다. 말하자면, 人民解放軍은 職業主義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정치적 역할은 文民의 지도자가 결정한 黨路線을 지지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軍의 守護者的役割과 결코 조화되지 않는다. 鄧小平의 改革政治도 중국을 文化革命 이전으로 돌리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文民의 지도자와 軍사이에는 상당한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黨軍관계의 기본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軍幹부들은 鄧小平의 “自由化” 정책이 그들의 신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한다. 예컨대, 중국의 언론들이 1981년 고위 黨·軍의 간부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권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였을 때,

軍의 신문은 그 비판자들을 “브르죠아 自由主義”的 영향을 받았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Liu, 1985:206)

둘째, 文民의 지도자와 軍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은 人民解放軍에 대한 國家豫算減少에 의하여 표면화되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30%나 감소되었다. (Ting, 1982:42) 四人幫의 체포후, 특히 1976~1978년의 守護者的役割이 수행되는 동안, 軍은 先進武器의 구매를 위하여 많은 사절단을 西方國家에 보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매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1983년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행한 趙紫陽 총리의 보고에 따르면, 國家豫算是 농업, 경공업, 교육, 문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國防에 관하여는 의례적인 언급이 있었을 뿐이었다. 人民解放軍 總參謀長 楊得志도 같은 대회에서 경제건설이 國防의 기초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國防隊의 예산정책을 “지지”하였다. (Liu, 1985:206) 그러나 楊得志의 “支持”에는 兩面性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文民의 指導者들이 과학, 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軍事에 대한 豫算輕減은 사실상 軍의 지위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시킨 것이 틀림없다.

세째, 文民의 指導者와 軍指導者와의 갈등은 전반적인 現代化的 일환으로 취해진 減軍정책에서도 비롯되었다. 1981년 鄧小平은 향후 3~4년동안에 4百萬의 人民解放軍을 4분의 3의 규모로 축소시킨다고 발표하였다. (Liu, 1985:206) 이것은 고참 軍幹부들의 반발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의 문제들은 어느 의미에서 鄧小平의 改革政治에 대한 反對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VII. 맺는 말

중국에 있어서 文民의 指導者와 軍幹부와의 관계는 물론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共生모델”로서 설명되어 왔다. (Perlmutter and LeoGrande, 1982:784-85). 그러나 共生관계라고 하여 그 관계가 항상 안정되어 온 것은 아니다. 특히 전국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人民解放軍은 거의 예외없이 정치적 危機의 상황에서 정치적 개입을 시도했었다. 여기서 위기의 상황이란 소위 過激한 劢力과 穩健한 劢力의 대립이 첨예화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軍이 반드시 單一의立場을 취하지는 아니하였어도 대체로 穩健세력을 지지했던 것이다.

文化革命의 반발과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軍의 정치적 역할이 비대해졌으며, 따라서 黨軍관계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야기되었었다. 오늘날 改革政治를 표방하고 있는 鄧小平은 軍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黨이 銃砲을 지배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黨軍관계의 現狀況과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려고 한다.

文化革命 이후 軍의 정치적 세력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수의 軍幹部들이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文化革命의 受惠者가 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文化革命과 毛澤東의 유산을 수호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軍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현대화의 改革을 추진하고 있는 鄧小平의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이슈들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毛澤東思想에 대한 평가이다. 鄧小平 일파는 적어도 두가지 이유에서 毛澤東의 업적과 사상을 격하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나는 毛澤東과 연관된 일체의 이데올로기가 그가 추진하고 있는 現代化計劃과 모순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毛澤東의 개인적인 영향력에 힘입어 黨內의 실력자로 부상했던 幹부들—특히 華國鋒등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黨과 軍의 幹부들은 文化革命의 受益者라는 이유때문에, 毛澤東 格下에 저항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華國鋒과 汪東興 등의 소위 “凡是派”였다. 또 許世友와 같은 軍幹부도 비록 1976~1977년의 危機 당시에는 鄧小平일파를 지지했지만, 개인적인 충성은 毛澤東에게 바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李先念, 余秋里, 葉劍英 등도 毛澤東에 대한 충성을 표시한 바가 있다. 물론 1981년 6월에 소집된 11期 6中全會에서 “우리 黨의 歷史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대한 決議”가 채택되고, (CPC, 1981) 毛澤東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결정되었으나 毛思想에 대한 전면적인 否定은 共產黨의 지배가 갖는 正統性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鄧小平 세력은 軍에 있어서 毛澤東 格下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文化革命에서 취한 軍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평가문제이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毛思想에 대한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鄧小平일파는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政策을 이념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文化革

命을 부정하려 하였지만, 일부 軍幹부의 반대에 봉착하여 상당한 양보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언급한 1981년의 決議에서도 軍은 “事態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모호한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세째는 鄧小平의 改革에 대한 軍의 반대이다. 일부 軍幹부들은 鄧小平의 “開放政策”에 비판적이며, 그 “정신적 오염”을 경계해 왔다. 軍幹부의 反鄧의 姿勢는 이념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권력과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의 素地를 안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指導부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中共당국으로서 상당수의 毛澤東 추종세력이 軍내부에 있다는 사실은 改革勢力이 당면하고 있고,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물론 鄧小平의 최근 정책은 軍으로 하여금 文化革命 이전의 軍으로 돌아가게 하고, 改革정치에 대한 軍의 반대를 견제하고, 노령의 軍幹부들을 퇴직시킴에 있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鄧의 후계자들이 이러한 정책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큰 의문으로 남아 있다. 많은 軍幹부들이 黨中央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鄧小平이 아직도 고령에도 불구하고 中央軍事委員會의 主席職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黨軍간의 새로운 갈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黨과 軍사이의 엄격한 제도적 경계가 없고, 軍의 정치적介入의 前例로 보아서, 軍 엘리트의 정치적 역할은 앞으로도 주목된다고 하겠다. 물론 많은 제3세계의 軍部처럼 人民解放軍이 정권을 탈취하여 군사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치적 危機의 상황에서 軍의 정치적介入은 예견된다고 할 수 있다. 黨과 軍의 관계가共生의 그것이라고 하더라도,共生의 형태와 폭은 언제나 문제시 된다고 할 것이다. (Johnston, 1984:1012-1039)

### 〈참 고 文 獻〉

周 方

1955 「我國國家機構」,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崔 明

1974 「現代中國의 政治」, 서울: 法文社.

1983 “中共에 있어서 黨과 軍의 關係: 民軍關係의 共產圈모델에 관한 一考察,”  
「韓國政治學會報」 제17집.

- Adelman, Jonathan R. (ed.)  
1982 *Communist Armies in Politics*, Boulder, Colo.: Westview
- Albright, David E.  
1980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32, No. 4 (July).
- Barnett, A. Doak  
1974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Mao Er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Bridgman, Philip  
1973 "The Fall of Lin Piao," *The China Quarterly*, No. 55 (July-Sept.).
- Chang, Parris H.  
1972a "Changing Patterns of Military Roles in Chinese Politics," in William W. Whiston (ed.), *The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in China in the 1970s*, New York: Praeger.  
1972b "Reginal Military Power: The Aftermath of the Cultural Revolution," *Asian Survey*, Vol. 12, No. 12 (December).
- 1978 *Power and Policy in China* (2nd and Enl. ed.), University Park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Charles, David A.  
1961 "The Dissimal of Marshal P'eng Teh-huai," *The China Quarterly*, No. 8 (October-December).
- Chien Tuan-Sheng  
1948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hinese Government," *Pacific Affairs*, Vol. XXI, No. 3 (Sept.).
- Chien Yn-Shen  
1969 "China's Fading Revolution: Army Dissent and Military Divisions, 1967~68," Hong Kong: Center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 Colton, Timothy J.  
1979 *Commissars, Commanders, and Civilian Authority: The Structure of Soviet Military Politics*, Cambridge, Maso.: Harvard University Press.
- CPC  
1981 *Resolution on CPC History (1949~81)*,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 Gittings, John  
1967 *The Role of Chinese Ar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erspring, Dale R. and Volgyes, Ivan (eds.)  
1978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Systems*, Boulder, Colo.: Westview.
- Huntington, Samuel P.  
1957 *The Solid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N.Y.: The Vantage Books.

- Jencks, Harlan W.
- 1982 *From Muskets to Missiles: Politics and Professionalism in the Chinese Army*, 1945~81, Boulder, Colo.: Westview.
- Joffe, Ellis
- 1965 *Party and Ar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er Corps*, 1949~64, Cambridge, Mass.: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 1973 "The Chinese Army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The Effects of Intervention," *The China Quarterly*, No. 55 (July-Sept.).
- 1982 "The Military as a Political Actor in China," in Kolkowicz and Korbonski (eds.), *Soldiers, Peasants, and Bureaucrats: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and Modernizing Societies*, London: George & Unwin.
- Johnston, Alastair I.
- 1984 "Changing Party-Army Relations in China, 1979~1984," *Asian Survey*, Vol. XXIV, No. 10 (October).
- Kau Ying-mau and Perrolle, Pierre M.
- 1974 "The Politics of Lin Piao's Abortive Military Coup," *Asian Survey*, Vol. 14, No. 6 (June).
- Kau Ying-mau (ed.)
- 1975 *The Lin Piao Affair: Power Politics and Military Coup*, White Plains, N.Y.: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 Kolkowicz, Roman
- 1965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lkowicz, Roman and Korbonski, Andrezej (eds.)
- 1982 *Soldiers, Peasants, and Bureaucrats: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and Modernizing Societi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Lee Hong Yung
- 1978 *The Politic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 Case Stud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n Piao
- 1959 "March Ahead under the Red Flag of the Party's General Line and Mao Tse-tung's Military Thought," *Jenmin Jih-pao*, Sept. 31.
- Liu, Alan P.L.
- 1985 *How China is Rul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ao Tse-tung
- 1954 "Problems of War and Strategy," *Selected Works*, Vol. II,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Michael, Franz H.

- 1946 "Chinese Military Tradition," *Far Eastern Survey*, Vol. XV, No. 5  
(March 13, March 27).
- Nelson, Harvey  
1972 "Military Forces in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Quarterly*, No. 51  
(July-Sept.).
- 1981 *The Chinese Military System* (2nd ed.), Boulder, Colo.: Westview.
- Perlmutter, Amos and LeoGrande, William  
1982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December).
- Robinson, Thomas W.  
1971 "The Wuhan Incident: Local Strife and Provincial Rebellion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a Quarterly*, No. 15 (July-Sept.).
- Schram, Stuart (ed.)  
1974 *Chairman Mao Talks to the People: Talks and Letters, 1956~1971*,  
N.Y.: Pantheon Books.
- Simmonds, J.D.  
1969 "P'eng Teh-huai: A Chronological Reexamination," *The China Quarterly*,  
No. 37 (Jan.-Mar.).
- Ting, William P.  
1972 "A Longitudinal Study of Chinese Military Factionalism," *Asian Survey*,  
Vol. 15, No. 10 (Oct.).
- 1982 "The Chinese Army," in Adelman (ed.) *Communist Armies in Politics*.
- U.S. Consulate-General  
*Current Background*
- Whitson, William W. and Huang Chan-hsia  
1972 *The Chinese High Command: A History of Communist Military Politics*,  
N.Y.: Praeger.
- Wu Tien-wei  
1983 *Lin Piao and Gang of Four*,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